

운송/조선/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

02. 6454-4879  
kiyeon.bae@meritz.co.kr02. 6454-4873  
jungha.oh@meritz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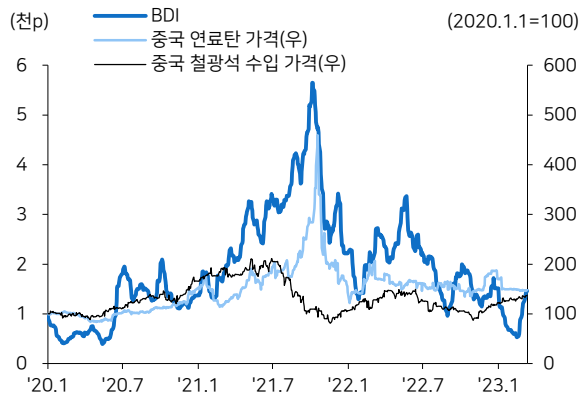
2023. 3. 17 (금)



##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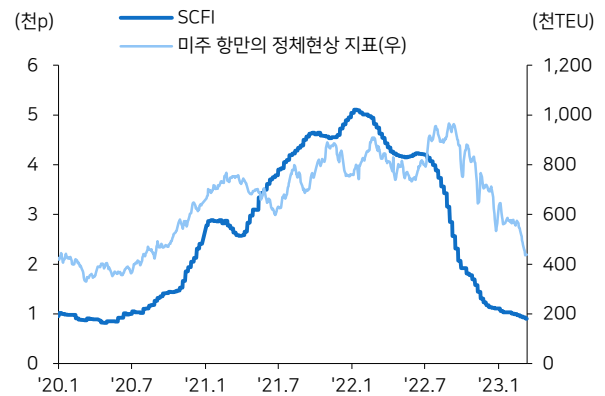
## 건화물운임(BDI)

1,560.0p(-43.0p DoD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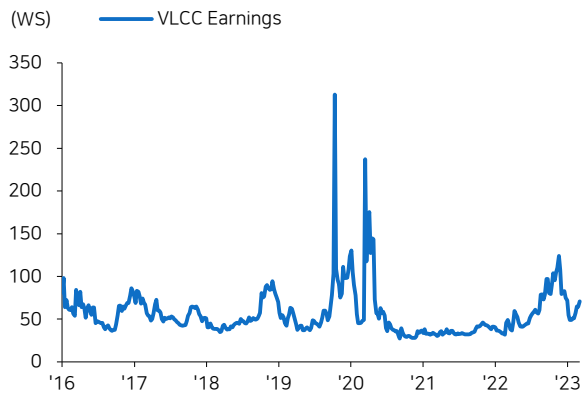
## 컨테이너운임(SCFI)

906.6p(-24.5p WoW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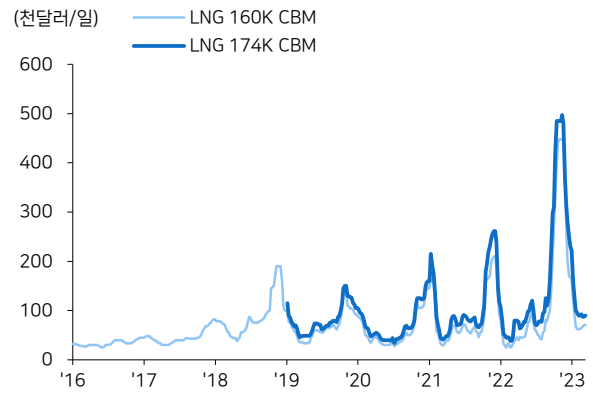


## VLCC Spot Rat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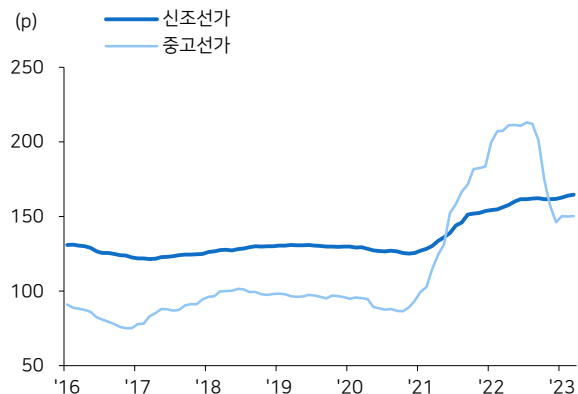
92.8p(+22.0p WoW)



## LNG Spot 운임

71.3천달러(+1.3천달러 WoW)  
90.0천달러(+2.5천달러 WoW)

##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

164.6p(+0.3p WoW)  
150.3p(-0.8p WoW)

## 중국 내수 후판가격

666.0달러(-2.0달러 DoD)



자료: Clarksons,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##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

### 초대형유조선 시황 강세 지속...용선료 10만弗 돌파

현대상호중공업이 Evalend Shipping으로부터 158,000DWT급 스크러버가 장착된 Suezmax 탱커 2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. 선가는 척당 8,400만달러 수준이며 2025년 상반기 인도 예정임. (선박뉴스) (<https://bit.ly/42fRIsb>)

### 현대중공업, 7천억원 통상임금 소급분 31일부터 순차 지급

현대중공업이 통상임금 소송 관련 산정액(소급분)을 3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보도됨. 지급 대상은 2009년 12월~2018년 5월 사이 현대중공업에 재직하던 직원임. 회사는 총지급 대상자를 3.8만명 정도, 전체 지급액을 7,000억원가량으로 추정한 바 있음. (연합뉴스) (<http://bit.ly/3LBLAV4>)

### EU, 원자재정책 혁신...中 수입 제한하고 EU내 생산늘려

유럽연합이 주요 원자재에 대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편,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을 제한하는 한편 보조금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EU내 생산을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됨. 계획의 핵심은 2030년까지 27개국에 필요한 청정기술의 40% 이상을 생산하는 동시에, 전략적 원료 소비의 65% 이상을 단일 제3국, 사실상 중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언급됨. (뉴시스) (<https://bit.ly/3TnQdEr>)

### 영업익 10조 '사상 최대' HMM, 현금배당 600원→1200원 '두배'

HMM이 현금배당 규모를 전년비 2배 늘렸다고 보도됨. 2021년 주당 600원에서 2022년 1,200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함. 2022년 연결기준 매출 17.6조원, 영업이익 9.9조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올린 바 있음. (뉴스1) (<http://bit.ly/3ZR30RT>)

### 삼성중공업, '적자난' 중국법인 매각...해외 사업 효율화

삼성중공업이 만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 법인 1곳의 매각을 단행했다고 보도됨. 중국 현지법인 중 하나인 '영성가야선업 유한공사'의 지분이 100% 처분 완료됐다고 공시됨. 2021년 12월 처분을 결정한 바 있음. 인수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알려짐. (헤럴드뉴스) (<http://bit.ly/3yHt2v1>)

### 나이먹은 탱커 운항 수명 길어질 듯

2023년 발주된 탱커는 2,800만DWT로 2022년 동기 대비 발주속도가 빨라졌다고 보도됨. 2022년 총 발주량은 6,800만DWT였다고 알려짐. 향후 석유 수요 증가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노선 변경에 비해 시장 유입 선박은 부족한 상황임. 이에 노후선박의 운항 수명이 늘어나고 폐선도 감소할 전망으로 알려짐. 최근 비싼 VLCC 대신 몇 달 간 수익성이 좋았던 PC선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주되었다고 언급됨. (선박뉴스) (<https://bit.ly/3YMYUJq>)